

치매환자 전수조사로 돌봄 사각지대 발굴

전주시보건소,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위해 추진... 대상자 추가 발굴·치매치료관리비 등 지원

전주시가 치매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치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추가 발굴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2023년 치매관리사업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약 2개월 동안 1만173명(2022년 12월말 기준 등록 치매환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치매환자 전수조사가 모두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는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관리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고,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및 민선8기 치매관리사업 확대 추진에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문조사 항목은 △인적정보 △동거 형태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치매 치료현황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

용현황 등으로, 전체 조사대상 64.2%인 6526명이 응답했다. 그 결과 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독거 치매환자 2171명과 부부치매환자 581명, 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2452명을 발굴했다.

또한 설문조사와 함께 모든 대상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 3579명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기도 했다.

응답자의 치매관리사업 이용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조호물품(37.5%)과 치매치료비(30.1%), 사례관리(3.2%), 원터(2.6%), 가족지원(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향후 필요한 서비스로는 치매치료비(41.3%), 조호물품(25%), 장기요양서

비스 확대 등 기타 서비스 지원(30.1%), 방문인지재활 서비스(1.7%), 가족지원(1%), 성능증은 배회감지기(0.9%)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돌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를 실시한 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돌봄재활 지원사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수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미응답자 3647명에 대해서는 유선 및 우편발송 등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기 치매환자 치료·관리 강화 △유관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치매환자 가족 지원 서

비스 다양화 △배회환자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치매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강화의 6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 전수 조사를 통해 치매 전달체계 강화,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전주시 치매관리사업 홍보 등 큰 성과를 얻었다"면서 "전수 조사를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전주시 치매관리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매 전수 조사 및 기타 치매 지원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치매안심센터(063-281-6291~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색장동 수소충전소' 9월 완공

지역 균형 배치 고려 동남부권에 구축... 수소승용차 1일 최대 50대 충전 가능

전주시 송천동과 삼천동, 평화동에 이어 동남부권인 색장동에 전주시역 4번째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전주시는 오는 9월까지 현 남원방향 색장동 LPG충전소(완산구 춘향로 4981) 부지에 총 30억원을 투입해 4번째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색장동 수소충전소의 설비용량은 250kg/일 규모로, 수소승용차 기준 1



전주시 색장동 수소충전소 조감도
일 50대 정도 충전이 가능하며, 승용

차 전용 충전소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색장동 수소충전소에 이어 삼립동에도 5번째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12월 전북개발공사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김옥기기자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9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주시와 협력해 수소차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전주에는 송천, 삼천, 평화 총 3곳의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4번째 수소충전소는 지역 균형 배치를 고려해 전주시 동남부권에 해당하는 색장동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수소차 이용객 등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 지속 운영

전주시가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기후 위기 대응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의식을 높여나가고 있다.

시는 올해 2만1800명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중립 시민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 △탄소중립 아동극 △환경기초시설 견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된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은 경로당과 주민센터, 복지회관, 아동기관 등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사를 파견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육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론수업과 교구를

활용한 체험수업이 병행 운영되고 있으며, 5월부터는 어린이들의 생활 속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탄소중립 아동극과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현장견학 프로그램은 환경기초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배우며, 교구를 통한 △자원재활용 △에너지 △물순환 3개 분야 체험 활동을 총 20회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양질의 탄소중립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2회 이상 탄소중립 시민강사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이후에는 교육 내용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정기회의 열려

전주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민간위원장 장성관)는 9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긴급지원 적정성 및 지원연장(43건) △기초수급 책정 및 보장비용 징수(72세대 109명) △사회보장기금운용 계획 등 사회보장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등에 논의했다.

장성관 위원장은 이날 "일상에서 다 함께 누리는 신바람 나는 복지 실현 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장하는 대표협의체가 될 수 있



도록 위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23년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의 1년차인 해로 전주시가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기자

'제7회 전주시 인문주간' 운영

15-20일 인문학 대중화 위해 강좌·체험 등 진행

전주시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도 인문주간 행사를 연다.

시와 원광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는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전주시평생학습관 등 전주시 일원에서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제7회 전주시 인문주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일상에 인문학을 더하는 더(The) 인문학'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인문주간 행사는 첫날 전주 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동네책방 등 전주시역 23개 인문기관에서 총 28개의 인문학 강좌가 예정돼 있다.

이번 인문주간 개막특강에는 15일 저녁 7시 '외로우니까 사람이 다'의 저자인 정호승 시인이 강사로 초청돼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각각의 인문기관별로 저마다의 특색에 맞춰 △인문학 음악 다 △고전을 더하다를 주제로 릴레이 인문학연을 이어간다.

특히 원광대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하는 '무지개 인문학'을 진행한다. 인문주간 기간에 매일 저녁 7시 평생학습관에서 미술 인문학, 음악 인문학, 문학 인문학 등을 운영, 시민들은 일상의 인문학을 만나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인문주간 중에는 시민들이 다양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세미나와 공연, 강좌, 인문 체험 등이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전주시 인문주간 행사에는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063-281-536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4212곳 전수조사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4212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상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전주시역의 경우 지난 2018년 전수조사 시 3560개 보다 652개 시설이 증가했다.

조사 대상시설은 △공공인 △공공주택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등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와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있었던 건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방법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기준에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제거 등) △안내시설(화장실, 목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시설(관람석·열람석, 접수대 등) 등으로 구분된다.

전수조사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3억3400만 원의 전수조사 사업비는 조사인력 29명의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을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하고, 결과를 분석해 향후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추진일정은 5월에 수행기관 선정, 6월조사원 채용, 6~10월 전수조사, 11월 설치율 제고 방안 마련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처분 등 행정조치를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공기관 시설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련 항목을 예산안에 반영시켜 편의시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옥기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